

맥락 중심의 시 교육 방법 연구

오정훈*

국문초록

시 감상의 초점은 학생의 자발성과 맥락 의존성에 있다고 하겠다. 작품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정서와 의미를 발견하고 자기 삶과의 관련성 속에서 내면화를 지향해야만 시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상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더라도 텍스트의 의미를 토대로 문학 감상이 이루어져야 담화공동체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학 감상의 방식을 학생들이 체득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작품 내적 맥락과 외적 맥락의 형성을 통해 작품에 전제된 시적 의미를 파악하는 자발적인 방법을 구안해 보았으며, 나아가 작가적 맥락을 고려해 작가의 창작 의도나 가치관에 기반을 두어 명확한 의미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작품의 구성 요소로서의 시어나 이미지, 어조 등을 파악하고 이를 일정한 연쇄에 의해 상상력을 확장시키는 물론, 관련된 유사 작품을 토대로 텍스트 내적 의미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작가의 가치관을 담은 메타 텍스트와 자료를 기반으로 작품에 전제된 작가 의도를 학생 자발적으로 탐색해 나가는 것도 시 감상의 주안점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주제어: 자율성, 맥락, 상호텍스트성, 작가 인식

* 경상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I. 자율성과 맥락을 고려한 시교육

시 문학은 서정성과 압축성을 특징으로 한다. 굳이 ‘세계의 자아화’(조동일, 1992)라는 시 갈래를 이론화하고자 하는 관념적 표현을 차용하지 않더라도, 시 고유의 속성으로 손꼽히는 것은 시적 정서를 형상화하고자 하는 운율에 있음은 분명하다. 시 감상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난이도가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소설이 현실의 구체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삼아 인물과 사건의 전개가 같듯이 증폭되고 찾아드는 국면들을 세세하게 서술하는 반면, 시는 ‘상징’을 통해 개별적인 사건의 전모를 차단하는 방식의 글쓰기를 고집해 나간다. 그러므로 시 감상의 장에서 학생들이 주목해야 할 사항은 시적 정서에 주목하는 읽기를 하되, 압축된 시상의 흐름을 자신의 문학적 경험과 시 해석 방식을 활용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펼쳐 나가는 것이다. 교사 일방의 시독법을 개별 작품마다 제시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시적 정서의 향유와 상징적 의미의 재구성이라는 시 감상의 본질에도 벗어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문학 감상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반응중심법이나 대화중심법(류수열 외, 2014) 등 다양한 종류의 문학교육 방법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감상의 중심에 ‘학생’을 위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수용이론이나 인지주의 혹은 사회구성주의에 기반한 여러 문학교육 방법론에 있어서도 학생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충분히 보장하지만 아울러 텍스트 자체의 맥락(구인환 외, 1998)에 대한 비중도 철저히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시 작품이 지니는 함축성과 상징성으로 인해 유발되는 해석의 힘겨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정서유발과 감상의 자의성을 충분히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텍스트의 내적 맥락과 외적 맥락은 물론 작가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도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품과 관련된 맥락이나 작가적 맥락 정보를 교사 일방의 전달 행위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맥락’을 탐색하고 의미를 발견하는 행위는 학생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문학교육에서는 지켜져야 하리라 본다.

시 감상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자율성’의 측면은 일차적으로 시 작품에 대한 학생 자신만의 온전한 감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 텍스트를 접하게 되면 소설을 읽어 내려가는 것과 동일한 읽기 방식을 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시어 속에서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분석해 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휘둘려 시적 배경이나 분위기, 정서, 시적대상이나 화자의 어조나 갈등, 혹은 시행의 배열이 유발하는 다양한 감수성을 놓치기 쉽다. 그러므로 시 감상의 국면에서 작품을 거듭해서 읽으며 행단위의 시 배열을 해체해 일상적인 통사구조의 배열로 재구조화하고,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기 이전에 일상의 의미인 1차적 의미, 즉 사전적 의미에 집중해 시를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 ‘반복해서 읽기, 행과 연을 일반 통사구조로 바꾸기, 사전적 의미 찾기’가 시 교육에서 먼저 요구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시도는 학생들로 하여금 시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의 배열로 이루어진 난해한 문장의 나열이라는 인식을 잠재울 수 있으며, 시 역시 삶의 일상을 표현하기 위해 언어를 매개로 한 정서적 의미적 차원의 형상물이라는 것을 무의식 중에 깨닫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듭해서 읽다보면 시의 운율감에 젖어들어 시 자체의 분위기나 정서를 점진적으로 찾아가게 되며, 이로써 학생 스스로도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어조 및 분위기의 변화는 물론 정서의 차별화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시 감상 교육에서 반복적으로 충분히 시와 대면하고 그 속에서 언어적 감수성을 학생들이 텍스트와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독자와 텍스트 맥락의 형성’이라 명명할 수 있다. 텍스트는 이미 작가에 의해 내적인 구조를 통해 일정한 맥락을 형성하고 있지만, 독자가 개별적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을 통해 텍스트와 독자는 그들만의 창조적인 맥락을 재형성해 나가기에 그러하다.

‘독자와 텍스트 맥락의 형성’에서 일차적으로 ‘반복적 읽기, 행과 연의 재배열, 사전적 의미 탐색’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작품을 독자의 입장에서 느끼고 이해하는 과정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작품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구절이 마음에 드는지, 표현 중에서 어떤 부분과 시어의 정서나 의미가 파악되지 않는지, 작품 속 화자나 시적대상의 경험과 유사한 학생들의 경험은 무엇인지, 작품 속 경험과 독자의 경험이 왜 유사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학생 스스로 묻고 답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추가로 주어져야 한다. 물론 텍스트와 독자의 친근한 맥락 형성을 위해 제기되는 질문과 답은 오로지 학생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능하면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을 택하되, 이러한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라면 교사의 직접적인 발문이나 학습지의 형태로 제공하고 이를 학생들이 선택적 혹은 전면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독자와 텍스트 맥락의 형성’에서 통사구조 재구성을 통한 사전적 의미 발견 이후에 수행되는 ‘텍스트와 관련된 독자적 경험의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이러한 내용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정리해서 텍스트화하는 과정으로 접어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학생들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유도되는 정서와 의미 내용에 다시 한 번 주목하게 되며 이를 자신의 경험과 관련해 좀더 확정적인 내용으로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독자와 텍스트 맥락의 형성’ 단계는 학생들이 시 작품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며, 텍스트의 내용과 독자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텍스트의 의미를 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 단초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작품에 대한 허용적 분위기의 조성 과 독자의 작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독자와 텍스트 맥락의 형성’이 마무리되고 나면 이제는 ‘독자 상호 맥락 형성’으로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의 감상이 우선시되어야 하지만 이는 감상과 해석의 ‘자율성’에 관해 ‘텍스트 자체의 맥락’을 간과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독자들 상호간의 논의를 통해 ‘텍

스트 자체’의 맥락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추가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개별 감상의 결과를 기록한 결과물을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거치면서 남과 나의 감상에 대해 거듭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독자 상호 맥락 형성’의 단계에서는 ‘자율적 감상’에서 시도되었던 정서적 의미론적 측면의 작품 해석이 얼마만큼의 타당성을 가지고 허용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놓여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텍스트 내적 맥락과 외적 맥락’, ‘작가적 맥락’(윤여탁 외, 2011) 등 다양한 차원의 근거를 통해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독자와의 맥락 형성이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분위기와 정서, 그리고 어조에 대한 정서 파악’(김재홍, 2015)이 작품 내부의 어떤 개별 시어들을 통해 뒷받침될 수 있는지, 시적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어떤 근거로 확정지을 수 있는지, 작품의 배경과 시적대상이 빚어내는 상황이나 갈등의 속성들이 어떤 시적 맥락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상징적 의미 파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작가의 관련된 어떤 작품의 어떤 부분을 텍스트 외적 맥락(김종훈, 2016)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작가의 시적 경향과 삶의 경험, 가치관 등을 통해 해당 시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감상할 수 있는지’ 등을 세세하게 따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개인적 차원에서 따져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혹여나 개별 독자가 놓칠 수 있는 해석과 감상의 타당성을 ‘독자 상호 맥락의 형성’이라는 논의 과정을 통해 좀더 거시적이고 입체적으로 접근해보자는 것이다. 물론 이때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의 논의 과정’보다 우선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질문과 논의는 철저히 학생 중심으로 진행하되 교사는 학생들이 놓치기 쉬운 질문이나 논의의 흐름을 방해하는 부적절한 토의 진행, 타당한 근거라고 많은 학생들에 의해 지지되는 요소이지만 기존의 담화공동체가 지지하고 있는 사항과 거리가 먼 경우에 한 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때도 직접적인 설명과 정리보다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자극할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 논의와 협업을 통해 답을 찾아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교사도 작품 감상 주제 중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독자들의 ‘감상 자율성’과 ‘맥락 형성의 근거’가 동시에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시 해석에 있어 하나의 정답과 관점은 있을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담화공동체의 해석적 합의(양왕용, 1997)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담화공동체의 학문적 성격이나 가치관, 관점에 따라 작품에 대한 해석적 논의는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교사에게 굳이 강요되는 사항이 있다면 다양한 담화공동체의 다양한 입장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좀더 타당한 해석을 학생들의 견해 속에서 탐색하게 하는 조력자로서의 자세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감상의 개별적 ‘자율성’과 텍스트와 작가의 ‘맥락’에 기반한 시 감상과 교육을 지향하고자 하며, 이러한 교육방법의 타당성을 보이기 위해 ‘텍스트적 맥락’과 ‘작가적

맥락'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텍스트적 맥락'은 작품 자체의 내적 맥락인 구성 요소를 토대로 작품의 해석과 감상에 접근하는 방법과, 동일 작가의 관련된 작품을 통해 시적 정서와 의미를 확정짓는 텍스트 외적 맥락을 동시에 규정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작가적 맥락'은 작가의 시적 경향이나 가치관 및 태도를 통해 시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단정짓고 이러한 방법들이 구체적인 개별 작품의 감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펼쳐가고자 한다. 특히 오규원 시의 경우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갖는 상징성 높은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기에, 해석의 여지가 많은 작품들을 어떻게 감상할 수 있을 지를 '자율성'과 '맥락'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II. '텍스트적 맥락'을 고려한 시 교육 방법

오규원의 작품들은 '언어'(김혜원, 2012)에 관심을 둔 결과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그는 '환유'적(정유미, 2011) 글쓰기를 중심으로 그의 시심을 형상화함으로써 기존의 비유적 글쓰기에 정면으로 도전하고자 한다. '시작법'(정경은, 2014)을 버리고자 하는 그의 도전적 글쓰기로 인해 오규원 작품의 해석 국면에서는 난해성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다닐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작품 속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오규원의 '아이러니적 사고'(박선영, 2004)는 시상의 전개 과정과 함께 낮설고 이질적인 이미지로 변모함으로써 난해성을 더욱 부추기는 효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작가의 독특하고 기발한 시적 가치인식에서 출발한 난해한 작품도 일차적으로 '독자와 텍스트 맥락의 형성'을 통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충분히 작품과 만나고 감상할 수 있는 자율적 분위기를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의 개별적인 배경지식과 문학적 경험을 토대로 감상하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며, 이 단계에서의 해석에 대한 오류와 타당성은 크게 문제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해 보인다. 그 이유는 감상의 자발성은 '타당성'에 대한 요구와는 상반된 결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텍스트의 내적 맥락을 통해 시 해석과 감상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별 시어의 유사성과 차별점(이혜원, 2015)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시 작품이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난해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유사한 시어의 배열을 통해 상징적 의미를 형상화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원형적 상징, 관습적 상징의 경우는 이미 그 함의된 정서나 의미가 담화공동체의 의식 속에 전제되어 있기에 어느 정도의 문학에 대한 경험을 가진 독자들이라면 쉽게 그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다. 하지만 개인 상징의 경우는 다르다. 말 그대로 개인 상징은 개별 작품에 한정되거나 개별 독자의 수준에서 제시되는 지극히 제한된 의미 정보망을 가지는 것이기에 문학 경험이 적거나 개인 상징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그 의미를 파악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인식의 마을은 회리바람이더라 흔들리는 언어이더라
무장한 나무들이더라
공장에선 석탄들이 결사적이더라
인식의 마을은 겨울이더라 강설이더라
바람이 동상에 걸린 가지를 자르더라
싸늘한 싸늘한 적설기더라 밤이더라
-오규원, 「인식의 마을」, 전문.

위 시를 토대로 '텍스트의 내적 맥락'을 살피는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생들로 하여금 중심제제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식' 혹은 '인식의 마을'이 그것이다. 위 작품은 각 행들이 '인식의 마을'과 은유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화자가 의도하는 '인식의 마을'이 어떤 정서와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지만 유사한 시어들의 연쇄를 통해 이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회리바람, 흔들리는 언어'를 통해 '인식' 혹은 개별적 인식이 통합적으로 일정한 균질을 이루는 '인식의 마을' 즉 인식과 관련된 '일반적 통념'은 회오리바람과 같이 '흔들리'는 속성을 가진 '언어'의 이미지를 가진다는 것이 화자의 견해인 것이다. 여기서 조금의 상상력을 발동하면 '흔들리는 언어'의 정서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언어는 대부분 사고를 확정짓거나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사실이나 관념을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해된다. '언어'로 고착화되는 순간 일반적 통념상 그 의미는 고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자는 이러한 사회적 통념을 거부하고 있다. '언어'를 '흔들리는' '회리바람'이라고 명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식의 마을'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의 총체인 보편적 사고 관념이 언어에 대한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맹신이었다면, 화자는 이를 부정하고 '언어'를 '흔들리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언어에 대한 절대성을 전면 부정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또한 '공장에선 석탄들이 결사적'이라는 표현을 '인식의 마을'과 연결지어 이해하면, '인식의 마을'은 현대사회 전체를 상징하는 시어로 이해할 수 있다. 물질중심의 가치, 경제성장 중심의 논리에 편승한 현대사회는 '공장'과 '석탄'이라는 산업의 매개들과 온갖 자원들을 개발 중심의 논리로 몰아가며 그러한 것들을 통해 극단적인 물질적 사고 속으로 편입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그야말로 '공장' 즉, 산업화를 위해 그리고 '석탄'이라는 지하자원 즉 자원을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전유하기 위해 '결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화자의 입장에서 산업화 중심의 개발 중심의 사고와 행태로 점철된 현대사회는 그러한 관습으로 '인식의 마을'을 형성하고 있기에, '겨울'일 수밖에 없으며 '강설'과 같이 차가운 분위기로 '바람이 동상에 걸린 가지를 자르'는 상황만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텍스트 내적 맥락(오세영, 2013a)을 고려해 시상의 과정을 따라 가면 이러한 감

상과 해석은 지극히 타당한 견해로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동상에 걸린 가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학생들의 자발적 감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면 다양한 대답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해답의 그물망을 비껴갈 수 없는 답 중의 하나는 바로, 화자와 독자를 포함한 ‘현대인’일 것이다. 우리는 ‘언어’라는 관념 중심의 사고를 표현하는 수단을 맹신하고 ‘언어’로 인해 모든 대상이나 구체적 사물들의 개별성을 절대적인 가치로 가시화하고 환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자의 지적처럼 자연을 ‘석탄’이라는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개발 중심의 논리에 편승해 ‘공장’이라는 산업화에만 길들여져 있는 ‘인식의 마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현대인 모두는 ‘동상에 걸린 가지’처럼 인간적 감수성과 감각을 상실한 채 ‘가지’가 잘리는 ‘짜늘한 적설기’, 즉 냉혹하고 차가운 눈만이 쌓여가는 ‘밤’ 속을 헤매는 군상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첫 행으로 돌아가 ‘인식의 마을’을 ‘흔들리는’ ‘회리바람’과 같은 ‘언어’라는 구절을 되뇌어 본다면, 그 속에는 관념적 ‘인식’, 물질 중심의 합리적 ‘인식’으로 인해 현대사회는 ‘회리바람’과 같이 흔들리는 ‘언어’만 난무한 공간임이 명확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시적 연결성에 주목하고 점진적으로 그 정서와 의미를 파악해 나가기 위해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상호 논의를 함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점검하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잤다.
오늘도 감기지 않는 내 눈을 기다리다
잠이 혼자 먼저 잠들고, 잠의 옷도, 잠의 신발도,
잠의 문패도 잠들고
나는 남아서 혼자 먼저 잠든 잠을
내려다본다.

지친 잠은 내 옆에 쓰러지자마자 몸을 웅크리고
가느다랗게 코를 곤다.
나의 잠은 어디 있는가.
나의 잠은 방문까지는 왔다가 되돌아가는지
방 밖에서는 가끔
모래알 허물어지는 소리만 보내온다.

남들이 시를 쓸 때 나도 시를 쓴다는 일은
아무래도 민망한 일이라고
나의 시는 조그만 충격에도 다른 소리를 내고

잠이 오지 않는다. 오지 않는 나의 잠을
누가 대신 자는가.
남의 잠은 잠의 평화이고
나의 잠은 잠의 죽음이라고
남의 잠은 잠의 꿈이고
나의 잠은 잠의 현실이라고

나의 잠은 나를 위해
꺼이 꺼이 울면서 어디로 갔는가.
-오규원, 「남들이 시를 쓸 때」, 전문.

위 시는 기존에 시 감상 방법이나 통상적인 인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매우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은 화자의 현재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기에 화자는 ‘오늘도 감기지 않는 내 눈을 기다리’는 행위만 할 뿐인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는 구절인 ‘잠이 혼자 먼저 잠들고, 잠이 옷도, 잠의 신발도, 잠의 문패도 잠’든다는 부분은 모호하기 그지 없다. 하지만 텍스트의 내적 맥락을 고려하되, 이미지와 이미지의 연쇄를 토대로 상상의 추론을 시도해 본다면 작가의 의도에 조금은 다가갈 수 있으리라 본다. ‘혼자 먼저 잠들고’ ‘잠의 옷, 잠의 신발, 잠의 문패’도 잠들었다고 하는데, 이때의 ‘잠’은 어떤 잠일까라는 의문을 먼저 제기해 볼직하다. 이어지는 ‘나는 남아서 혼자 먼저 잠든 잠을 내려다본다’라고 시상을 전개하고 있기에, ‘잠이 혼자 먼저 잠들고, 잠의 옷도, 잠의 신발도, 잠의 문패도’에서 기술하고 있는 ‘잠’은 ‘나’와는 상반되는 정서적 의미를 지닌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잠이 오지 않는 밤’과 ‘오늘도 감기지 않는 내 눈’을 고려했을 때 분명 ‘혼자 먼저 잠든 잠’에서의 ‘잠’은 ‘나’와는 대비적 의미를 지닌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연으로 옮겨가면서 이미지를 좀더 확장시켜 나가면 ‘나’와 ‘잠’의 대비에 전제된 실체적 정서 의미를 좀더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지친 잠은 쓰러지자마자 몸을 웅크리고 가느다랗게 코를 곤다’라는 구절과 ‘나의 잠은 어디 있는가’라는 부분을 통해 지금까지 기술되었던 ‘잠’과 ‘나’는, ‘잠’과 ‘나의 잠’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즉 ‘잠’은 타인의 ‘잠’을 지칭하는 것으로, ‘나’의 상징적 의미는 타인과 변별되는 ‘나의 잠’으로 이해 가능하다. ‘잠의 옷, 잠의 신발, 잠의 문패’라는 표현을 통해 ‘잠’을 의인화함으로써 다소 이질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으나, 결국은 위의 시는 ‘타인의 잠’과 ‘나의 잠’을 대비시킴으로써 시상을 초점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4연에서 화자는 ‘오지 않는 나의 잠을 누가 대신 자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답은

이미 1연과 2연을 통해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타인’, 즉 ‘나의 잠’과 대비되는 ‘타인들의 잠’인 것이다. ‘잠’이 의인화되어 있으니 나를 제외한 타인들은 모두 숙면에 젖어 있고 있음을 다소 생소한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혼자 먼저 잠’에 빠져 있기에 화자가 보기에 ‘잠의 평화’와 ‘잠의 꿈’을 만끽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화자의 ‘잠’은 잠들지 못하는 것이기에 ‘잠의 죽음’이며, 깨어서 현실의 상황을 직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잠의 현실’인 것이다. 화자는 끝으로 ‘나를 위한 ‘잠’은 ‘꺼이 울면서 어디로 갔는가’라고 되묻고 있다. 다만 ‘나의 잠’은 ‘모래알 허물어지는 소리만 보내’울 뿐인 것이다. 잠들지 못하고 깨어있는 화자에게, 잠들지 못하는 현실은 ‘모래알 허물어지는 소리’만 자각하는, 공허하고 적막하며 무미건조한 상황일 뿐이다.

여기에서 의문이 든다. 왜 화자는 잠들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3연에서 드러나고 있다. ‘시를’ 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단지 시를 쓰기 위해 깨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남들이 시를 쓸 때’ 동일한 방식과 가치관으로 ‘나도 시를 쓴다는 일’은 ‘민망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화자는 기존의 시 쓰기 방식과는 차별화된 자신만의 시작법을 고집하기에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화자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시작법은 ‘조그만 충격에도 다른 소리’를 내는 섬세하면서도 독특한 소리인 것이다. 감각이 무더 있는 삶의 방식과 이를 형상화하는 시적 태도가 아니라 예민하고도 감각적으로 삶을 형상화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그만 충격’에도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는 시는 통념적이고 관념적인 글쓰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물과 대상을 중심으로 두고자 하는 시적 태도인 것이다.

이미지 연쇄를 통해 시의 내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되, 위의 시처럼 맥락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의도에 따라 다소 이질적이거나 비순차적일 수 있다. 1연에서 4년까지 순서대로 이미지를 결합시키고 상상적 이미지를 추론하기보다, 상황에 따라서는 1연에서 2연, 2연에서 4연, 그리고 다시 3연으로 그 시상의 전개 과정을 학생 스스로 재구조화 내지는 재형성해서 새롭게 이미지 연쇄를 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텍스트 내적 맥락을 형성하는 작업도 기본적으로는 시어의 연쇄를 통해 이미지를 이어가는 것이기는 하되, 시상의 배열을 적극적으로 재구조화함으로써 학생 자신만의 이미지를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상상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상력은 또 다시 내적 맥락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순환적 과정이 지속되어야 하리라 본다.

잠자는 일만큼 쉬운 일도 없는 것을, 그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어 두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는
 밤 1시와 2시의 틈 사이로
 밤 1시와 2시의 공상의 틈 사이로
 문득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내 머리에 찬물을 한 바가지 퍼붓는다.

할 말 없어 돌아누워 두 눈을 멀뚱하고 있으면,
 내 젖은 몸을 안고
 이왕 잘못 살았으면 계속 잘못 하는 방법도 방법이라고
 악마 같은 밤이 나를 속인다.

-오규원, 「문득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이」, 전문.

위에서 「남들이 시를 쓸 때」라는 작품을 작품의 내적 맥락을 통해 시적 정서와 의미에 접근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작가의 다른 작품들과의 상호텍스트성 즉, 작품 외적 맥락에 주목함으로써 감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남들이 시를 쓸 때」에서 화자는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언급하지만 그 명확한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텍스트 내적 맥락만으로 그 상황을 짐작하기란 쉽지 않다. 이를 위해 텍스트를 확장시켜 작가의 정서와 의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문득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이」라는 작품에서 다소 구체적인 이유를 살필 수 있게 된다. 화자는 ‘잠자는 일만큼 쉬운 일도 없’지만 ‘그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이어 ‘문득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에 까지 인식이 확장되면서 화자의 불면의 원인이 ‘잘못’ 산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은 화자의 ‘머리에 찬물을 한 바가지’ 퍼붓는 자기성찰과 자기각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왕 잘못 살았으면 계속 잘못 사는 방법도 방법’이라는 ‘악마 같은 밤’ 즉 나의 반성을 와해시키는 현실적 조건과의 갈등으로 인해 하자는 더욱 번민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결국 「문득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이」라는 외적 텍스트 맥락을 통해 화자가 잠 못드는 이유는 ‘악마 같은 밤’과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계속 잘못’ 살게 하는 현실 타협적 인식임을 알게 된다. 「남들이 시를 쓸 때」라는 작품을 통해 명확하게 진단할 수 없었던 화자의 잠 못드는 원인을 「문득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이」라는 작품과의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모순적 현실과 인간적 조건의 한계 속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번민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악마 같은 밤’은 어떤 상황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가. 「문득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이」에서는 화자의 불면의 원인에 대한 다소 포괄적이며 일반적인 차원의 암시만을 형상화할 뿐 그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또한 텍스트 외적 맥락의 형성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

거리에서 가을은 느닷없이 1906년 2월 1일, 일본이 한국통감부를 설치한 일을 아느냐고 묻는다. 술집 뒷골목에서 조금씩 비틀거리는 내 앞을 가로막고 1960년 4월 25일에 대학 교

수단 데모가 있었다고 말한다.

1960년 5월 29일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와이로 망명하고, 1910년 6월 24일에는 구한국이 일본에 경찰권을 이양, 1885년 10월 8일에는 일본인이 민비를 살해, 1905년 11월 4일에는 민영환이 자살, 1947년 12월 22일에는 김구가 남한 군정 반대 성명을 발표했는데, -오규원, 「코스모스를 노래함」, 부분.

「코스모스를 노래함」은 ‘악마 같은 밤’의 실체를 역사적 과정의 교차적 서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적 긴장감이나 운율, 이미지의 압축성 같은 기교가 배제되고 서사적 기술처럼 상황의 서술에만 집중하고 있어 시로서의 값을 가지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의 세세한 기술이나 서술자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기법을 활용하는 대신, 묘사에만 초점을 둬으로써 대상과 화자의 거리를 낮출게 하려는 시도만으로도 충분히 시적 기법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또한 역사적 사건의 서술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형상화한 것을 통해 화자의 정서적 의미에 대한 함축적 시도를 감행한 형상화 방법으로 볼 수 있기에 충분히 시적이라 하겠다.

「코스모스를 노래함」에서는 4·19 혁명을 전후한 시대적 갈등과 구한말 제국주의에 의해 국권이 침탈당하는 과정을 교차하면서 서술하고 있다. 즉 화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굴곡 어린 우리의 역사, 즉 집권 세력의 무능과 반복이 ‘악마 같은 밤’의 실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민영환의 자살’이나 ‘대학 교수단 데모’와 같은 저항의 움직임이 없지 않았으나 지식인의 목소리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김구의 남한 군정 반대’라는 자주적이며 민족 통합적 정치적 시도 역시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미미한 것에 불과했음을 화자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남들이 시를 쓸 때」에서 잠 못드는 화자는 위 시의 ‘민영환’이나 ‘대학 교수단’, 혹은 ‘김구’의 고민을 대신하는 주체임에 분명하지만, 역사적 변화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화자의 밤은 ‘악마’ 같은 공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복궁이 이 나라의 왕 고종을 궁녀의 교자에 태워 중신과 백성 몰래 밖으로 내보내 버린 것은 1896년 2월 11일. 영추문은 경복궁이 시키는 대로 門을 열고 정동 러시아 공사관에 얻어놓은 단칸 전세방으로 가는 길만 눈으로 가리켰다.

이 나라의 겨울을 겨울답게, 겨울답게 맞이하기 위해 왕을 내보내버린 뒤 빈 궁궐로 출고 긴 겨울을 맞이하던 경복궁.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오규원, 「경복궁-아관파천」, 부분.

위의 시는 좀더 시대를 거슬러 ‘악마 같은 밤’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아관파천’이라는 치욕의 역사적 사실, 즉 ‘궁녀의 교자에 태워 중신과 백성 몰래 밖으로 피신하는 ‘왕’의 무능과 비굴함이 ‘이 나라의 겨울을 겨울답게’ 만드는 근원적 원인임을 과거에만 한정하지 않고, 화자가 존재하는 지금의 역사적 현상이 ‘악마 같은 밤’일 수밖에 없는 원인을 과거의 역사적 사건 속에서 다시금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남들이 시를 쓸 때」에서 발견되는 화자의 고뇌가 개인적 측면의 일들과 관련된 것이라고 감상을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었지만, 「코스모스를 노래함」과 「경복궁-아관파천」으로 텍스트 외적 맥락을 확장하게 되면 화자의 고뇌는 잘못된 사회구조와 위정자들의 책임의식의 부재라는 역사적이고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것임을 재발견하게 된다.

Ⅲ. ‘작가적 맥락’을 고려한 시 교육 방법

작가 맥락을 고려한 시 감상은 작품 텍스트 차원을 넘어 작가의 의도나 가치관 등을 고려해 작품의 내적 정서와 의미(송하춘 외, 2014)를 살피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개인 상징성이 강한 현대시의 경우, 작가의 메타 텍스트에 해당하는 관련 시문이나 글들을 살피으로써 문학 텍스트의 정서적 의미(오세영, 2013b)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자원 전쟁 시대 유희 전쟁 시대 그러나 걱정 마라, 우회 전쟁시대, 이 글은 패배 전쟁 시대의 시 애기가 아니니 오해 마라. 시는 언제나 패배이니 승리는 오해 마라.

시인의 나라는 높은 산 골짜기에 있다.

시인의 나라는 잎이 바삭거리도 살이 바삭바삭 부서지는 골짜기에 있다. 골짜기에는 실속 없는 장난

애매모호한 대화

무능한 노랫소리가 구름이 되어 산허리를 졸라맨다. 그때마다 산의 키가 항상 구체적으로 자란다.

산속 골짜기에는 李箱이 병신들과 함께 누워 히히닥거린다. 늙은 여자 사이에서 릴케가, 동성 연애가 랭보가 낄낄낄 웃으며 보고 있다. 도망가는 여자 앞에 꽃을 뿌리는 병신 素月을 보며 萬海가 이별을 참미하는(이별이 아름답다는 것은 훗날 거짓말이다!) 엄불을 외운다.

시는 추상의이니 구상의은 오해 마라. 시인은 병신이니 안 병신은 오해 마라. 지금 한국은 산문이다. 정치도 산문 사회도 산문 시인도 산문이다. 산문적이기 위한 전쟁 시대, 시인들이 전쟁터로 끌려가는 모습이 보인다. 끌려가는 시인의 빛나는 제복, 끌려가지 못하는 병신들만 남아 제복도 없이 아, 시를 쓴다.

-오규원, 「시인들」, 전문.

위 작품의 시적 의미는 매우 난해하다. 작품의 내적 텍스트 맥락만으로 정서적 의미를 단정짓기에는 한계가 있다. 좀더 구체적인 감상을 위해 작가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차적으로 위 작품의 의미를 확장해 볼 수 있는 메타 텍스트를 살펴본다면, 「몇 개의 현상-Ⅱ. 환상의 땅」, 「꽃의 패러디」 등을 상정할 수 있겠다. 위 시에서 화자는 ‘시는 언제나 패배’라고 규정하면서 ‘시인의 나라’는 ‘골짜기’에 존재하며 ‘실속 없는 장난’과 ‘애매모호한 대화’가 본질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러한 ‘산속 골짜기’에 거처하고 있는 ‘이상, 릴케, 랭보, 소월, 만해’와 같은 시인들을 ‘병신’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인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부정적임을 엿보게 된다. 이를 그의 메타 텍스트에 해당하는 「몇 개의 현상-Ⅱ. 환상의 땅」을 통해 의미를 심층적으로 따져 본다면, 언어 즉, 시인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태도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짐작하게 된다.

고요한 환상의
출장소
뜰, 뜰의
달콤한 구석에서
언어들이
취고 있다.
추상의 나뭇가지에
살고 있는
언어들 중의
몇몇은
위험한 나뭇가지 사이를
날아다니다
떨어져 죽고,
나의
고장난 수도꼭지에서도
뚜옥 뚜옥
언어들이 죽는다. (중략)
의식의
고장난 수도꼭지에서
신다.

-오규원, 「몇 개의 현상-Ⅱ. 환상의 땅」, 부분.

「몇 개의 현상-Ⅱ. 환상의 땅」에서 화자는 ‘언어’의 가치가 ‘추상’의 공간임을 명확히 하

며, 추상의 근원은 ‘의식’에 근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의식의 고장난 수도꼭지’에서 발원하는 ‘언어’는 구체성이 아니라 ‘추상’성을 지향하기에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소멸될 뿐이다. 언어가 자리하는 장소는 ‘고요한 환상’, ‘달콤한 구석’이라 믿어지지만 이곳에서의 ‘언어’의 삶은 찰나적인 착각일 뿐, 현실과 괴리된 채 ‘나뭇가지 사이를 날아다니다 떨어져 죽고 마는, 현실 속에서 현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언어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마는 것임을 화자는 주목하고 있다. 「몇 개의 현상-Ⅱ. 환상의 땅」라는 시는 ‘언어’와 ‘시’, 그리고 그러한 결과물을 창조해 내는 ‘시인’에 대한 오규원의 메타적 인식을 담은 시라고 할 수 있다. 오규원의 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아래의 시론(오규원, 1983)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나는 적어도 시란 내가 심은 꽃이 최소한 건물의 색깔이 낡았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존재여야 하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식구들의 미적 감각이나 도덕 감각이란 일종의 고정관념이었음을 깨닫게 하는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문화란 자연에 변화를 주어 온 人爲의 다른 이름이며, 그러므로 조화의 세계가 아니라 적어도 변혁을 꿈꾸는, 늘 인위에 의해 새로운 삶이 추가되는 세계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위 시론에서 오규원은 인간의 ‘문화’를 ‘인위’적 삶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인간에 의해 시도된 문화적 현상들이 ‘일종의 고정 관념’이었으며 ‘미적 감각’이나 ‘도덕 감각’이라는 것도 ‘고정 관념’에 종속되는 것들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시’ 역시 이러한 ‘고정 관념’에 부합했을 뿐, 오규원의 지적처럼 ‘낡았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형상화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기반성의 목소리까지 들려 주고 있는 것이다. 「몇 개의 현상-Ⅱ. 환상의 땅」라는 메타 텍스트와 시론을 통해 오규원의 작가적 맥락은 ‘시’와 ‘언어’ 그리고 그들이 쏟아내는 작품들이 현실과 무관하게 난무되는 ‘환상’ 자체임을 깨닫게 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왜곡될 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
그것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곧 나에게로 오서
내가 부른 이름대로 모습을 바꾸었다.
-오규원, 「꽃의 패러디」, 부분.

메타 텍스트에 해당하는 위의 시도 ‘언어’와 ‘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담기는 마찬가지로이다. 시인은 대상이나 사물을 시어를 통해 상상적 이미지로 재구조화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오규원에게 시인은 시어를 통해 대상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존재일 뿐이다. 시인이 대상을 시어로 형상화하는 순간 시인이 ‘부른 이름대로 모습을 바’꿀 뿐이다. 시인은 새로운 정서나 의미를 창조해 내는 미의 전도사가 아니라 시인의 인식과 가치관 속에 대상을 가두어 뚫으로써 대상과 사물을 획일화시키고 본질을 훼손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인들」에서처럼 화자는 ‘시’를 ‘추상적’이라고 규정짓고 ‘구상’이 사라져 가는 시작법에 경계적 태도를 늦추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오규원이 보기에 기존 시인의 시작법은 현실 속에 만연한 ‘자원 전쟁 시대’, ‘유류 전쟁 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우회’적으로 대상을 ‘추상’화시킴으로써 ‘우회 전쟁 시대’를 연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인들의 ‘우회’적 시작법은 그대로 ‘언제나 패배’라는 결과만을 낳을 뿐, 독자와 세상에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만다. 그러기에 시인은 늘 ‘산 골짜기’에서 ‘실속 없는 장난’, ‘에메도호한 대화’만을 늘어놓는 ‘병신’인 것이다. 이는 관념을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언어 자체의 한계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함축적 상징만을 고집하는 시인들의 시작법도 벗어나야 할 한계임을 오규원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시인들」에서 오규원은 ‘지금 한국은 산문’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시인들이 ‘산문적이기 위한 전쟁 시대’로 ‘끌려’가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오규원이 ‘세계 속에 존재하는 사람, 사물, 도시, 자연들이 파편적으로 존재함을 보임으로써 세계 자체를 그려내고자 하는 산문 지향적 태도’(송기환, 2007)와 무관하지 않다.

오규원은 그의 시론에서 언어의 관념성을 부정하고 급기야 ‘생성의 시간적 언어인 현상을 기록함으로써 살아 있는 언어와 굳어 있지 않은 의미로서의 이미지’(이찬, 2011)를 지향하고자 함을 밝힌 바 있다. 「시인들」을 통해 밝힌 오규원의 시적 경향이 급기야 사물 자체에 주안점을 뚫으로써 대상과 세상의 묘사에 초점을 두게 한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 결국 오규원은 시를 통해 과도한 상징을 함축하거나 인간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작품을 창작하고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되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대상의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서술해 냄으로써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작가적 맥락을 고려한 시 감상 교육에서는 철저히 작가의 가치 인식을 탐색할 수 있는 작품과 텍스트에 토대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때 교사 주도적으로 시적 의미나 정서를 설명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감상 의미를 확정지을 수 있는 메타 시를 탐색하거나 관련 자료를 찾게 함으로써 과정 중심의 방법을 강요할 필요가 있겠다. 사실 모든 시적 의미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시도되는 것이다. 교사 일방의 설명은 그러한 근거를 생략한 채 전달될 우려가 있으며, 설혹 근거가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학생의 입장에서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근거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감상의 주체는

학생이 되어야 하며 타당한 감상의 결과를 제시하고 담화공동체와 동등한 위치에서 자기 감상 결과를 제시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감상의 근거를 학생의 눈높이에서 찾고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교사는 작가적 맥락을 형성할 수 있는 자료를 찾는 방법이나 요령을 충분히 사전에 안내할 필요는 있다. 가능하다면 교사의 시범을 통해 해당 작품을 작가적 맥락과 관련지어 어떻게 해석하고 감상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작품의 난이도에 따라 개별 활동이나 모둠 활동으로 다변화할 필요도 있으며, 교사의 개입보다는 학생들 상호 논의를 통해 작가적 맥락을 찾고 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탐색하고 조절해 나가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본다. 학생들이 문학 감상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생 주도적으로 상호 소통을 통해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초보 수준의 학생일 경우에는 메타 텍스트와 관련 자료를 교사가 사전에 본보기 시에 함께 제시하면서 학생들이 보조 자료를 활용해서 읽어 나가는 방법에 주목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문학 감상력이 낮은 학생의 경우, 관련 구절의 의미를 보완하거나 확정지을 자료를 찾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작품에 대한 감상과 해석이 영성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주관적 해석에 기반한 채 자료를 선정함으로써 오히려 해석의 오류를 가중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감동할 시간도 주지 않고 한 사내가
 간다 감동할 시간도 주지 않고
 뒷머리를 질끈 동여맨 여자의 모가지 하나가
 여러 사내 어깨 사이에 끼인다
 급히 여자가 자기의 모가지를 남의 몸에
 붙인다. 두 발짝 가더니 다시
 모가지를 남의 어깨 위에 붙여놓는다 나는
 사람들을 비키며 제자리에 붙인다
 감동할 시간도 주지 않고 한 여자의
 핸드백과 한 여자의 아랫도리 사이
 하얀 성모 마리아의 가슴에
 주전자가 올라붙는다 마리아의 한쪽 가슴에서
 물이 줄줄 흐른다 놀란 여자 하나
 그 자리에 멈춘다 아스팔트가 꿈틀한다
 짝짝 아스팔트를 제압하며 승용차가
 간다 또 한 대 두 대의 트럭이
 이런 사내와 저런 여자들을 썩썩 뚫으며

간다 사내와 여자들이 뭉개지며 감동할
 시간을 주지 않고
 나는 시간을 따로 잘라내어 만든다
 -오규원, 『거리의 시간』, 전문.

위 시는 매우 기괴하게 읽힌다. 몽타주와 그로테스크라는 독특한 시적 기법이 사용되어 상징적 의미는 가중되는 듯하다. 하지만 위 시를 오규원이 강조한 ‘인간적 관점을 이탈한 전위적 풍경’의 지향성과 ‘인간이 배제된 자연 자체의 존재성 강조’(장동석, 2011)라는 태도에 주목한다면 해석과 감상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정적인 사물 세계를 동적인 존재로 치환’(김문주, 2010)하고자 했던 그의 시론에 따른다면 「거리의 시간」이 사물의 중심의 관점에서 화자의 시선에 비친 현상을 묘사적으로 서술한 작품임을 파악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위 시는 화자의 ‘감동’이라는 시적 정서가 철저히 배제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여가의 모가지 하나가 여러 사내 어깨 사이에 끼’이는 것은 먼 거리에서 화자의 시선이 포착한 대상의 모습을 그대로 서술한 것일 뿐이다. 행인들이 교차하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면 몸과 몸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기괴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한다.

현실적 관점에서 보면 ‘여자의 모가지’가 ‘사내 어깨 사이에 끼’이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관찰 대상과의 일정한 거리 유지와 순간적인 영상의 포착에 주목한다면 일상성을 넘어서는 이미지의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자가 자기의 모가지를 남의 몸에 붙’이는 것, ‘하얀 성모 마리아의 가슴에 주전자가 올라붙’는 모습, ‘마리아의 한쪽 가슴에서 물이 줄줄 흐’르는 장면, ‘아스팔트를 제압하며 승용차가’ 가는 형상, ‘트럭이 이런 사내와 저런 여자들을 썩썩 뭉개며’ 가는 영상 등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순간적이면서도 원시안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구현되고 있는 모습들이라 할 수 있다. 주전자를 들고 가는 사람이 물을 쏟는 모습과 성모 마리아상이 근접해 놓여 있을 경우, 각도의 묘한 접점이 ‘마리아의 한쪽 가슴에서 물이’ 흐르는 장면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다. ‘사내’와 ‘여자’가 시선에 들어왔다가 그 앞을 ‘트럭’이 지나간다면 분명 그들은 순간적으로 모습이 사라지기에 ‘썩썩 뭉개’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리의 시간」을 통해 오규원은 철저히 인간적 관념을 배제하고 사물이나 대상이 보이는 대로 관찰하고 묘사하는 시작법을 고수하고자 하는 것이다. ‘언어’가 근원적으로 인간의 관념에 부합해 추상적 인식을 표현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며, 일반적 사고와는 달리 언어가 대상의 구체적 본질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일 수 없으며 오히려 언어로 인해 사물의 본성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적시하고 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규원은 위의 시처럼 대상의 사물성에 주목하고 인간의 고정 관념이 배제된 순수한 사물의 세계를 시 속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겠다. 오규원은 극단적으로 ‘사물 자체’가 ‘시’임

을 역설하기도 한다.

사물이, 모든 사물이 그냥
 그대로 한 편의 시이듯
 사람이, 사람들이 또한
 모두 시구나
 시가 그릇이라면 모든
 사물도 그릇이며
 시가 밥이라면 모든
 존재 또한 지상의 밥이니
 대리석과 벽돌과 유리문
 유리문의 손잡이
 접혀오는 계절인 층계
 명식이, 종만, 훈이며
 -오규원, 『詩人 久甫氏의 一日』, 부분.

위 시는 ‘사물이 그냥 그대로 한 편의 시’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시’는 언어를 매개로 형상화된 것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언어와는 차별적이다. ‘시가 그릇이라면 모든 사물도 그릇’이고, ‘시가 밥이라면 모든 존재 또한 지상의 밥’이라고 함으로써 ‘시와 그릇, 사물과 그릇’을 동일한 위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사와 밥, 존재와 지상의 밥’ 또한 동등한 자격으로 등가성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는 사물로서의 그릇과 존재로서의 지상의 밥을 추상화하거나 관념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배제된 채 오로지 시는 사물이나 존재의 실체성과 구체성을 드러내는 데에만 종사하고 있을 뿐이다. 오규원의 입장에서 시적 언어는 이치탐 추상성과 관념성이 배제되어야만 그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언어로 형상화된 시에서는 ‘대리석, 벽돌, 유리문, 손잡이, 계절, 명식이, 종만, 훈’이라는 대상들이 등가적 가치로 자리하게 되며 그 자체로서 시적인 의의를 갖는다는 것이다.

물론 오규원의 시적 태도와 그의 창작물이 시 보편적 특성을 갖는 것이냐는 반문은 충분히 가능하다. 아울러 그의 시가 시적 미학을 충분히 함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는 충분하다. 하지만 예술과 예술에 대한 인식이 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작가 나름대로의 가치 태도이며, 형식의 파괴를 통해 새로운 미학적 인식을 구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예술로 인정받아 왔기에 그의 창작물도 충분히 예술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런 점에서 작가적 맥락을 형성하고 있는 작가의 미적 인식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 사이에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것도 매우 의미미한 교육 방법 중 하나라 할 것이다.

IV. 마무리

본고에서는 ‘맥락’에 주안점을 두어 시 감상 방법과 교육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특히 오규원 시와 같이 난해한 작품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자발적이고도 주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텍스트적 맥락’과 ‘작가적 맥락’의 형성이 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작품을 들어 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논의하였다. 학생들의 경우 기존의 교육 방법에 익숙해 난해한 상징성이 배설된 작품의 경우 자발적으로 시적 정서와 의미를 탐색하고 그 근거를 스스로 마련해 감상 결과를 확정짓기보다, 교사의 설명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곤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텍스트의 맥락을 형성하는 개별 시어의 흐름, 시상의 전개 방식, 이미지 연쇄 등에 주목하고 이들의 관계를 따져 물으면서 점진적으로 상징적 의미에 접근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감상의 효율성이 증대되리라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내적 텍스트 맥락만으로 그 의미를 확정짓기 어려운 경우, 동일 작가의 상호 텍스트성을 활용함으로써 텍스트 외적 맥락을 학생 스스로 찾아내고 이를 통해 시어의 의미를 규정할 수 있는 방법적 타당성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주제나 소재의 유사성, 화자의 정서나 시적 분위기의 근친성, 작가의 가치 인식이나 태도의 유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텍스트를 물색하고 텍스트와 텍스트의 관련성에 최대한 집중함으로써 제시된 작품의 시적 의미를 좀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럴 때 제시된 시 작품의 상징성이 해석의 모호성과 난해성을 유발해 확정적인 정서나 의미를 도출할 수 없는 경우이기에, 텍스트 외적 맥락을 형성하기 위해 도입되는 관련 텍스트는 추론과 상상의 가능성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작가적 맥락을 고려한 감상법은 작가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텍스트에 교차시키는 것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작가의 인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메타 텍스트와 시론, 관련 자료를 찾고 이를 적용시켜가면서 의미를 명확히 하는 방법이다. 학생들 스스로 자료를 탐색하던 교사가 적절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시하든, 학생들은 제시된 작품과 관련된 자료에 주목하고 의미의 상징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으로 유도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구인환 외(1998), 문학교육론, 삼지원.
 김문주(2010), 오규원 후기시의 자연 형상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2집.
 김재홍(2015), 생명 사랑 평등의 시학 탐구.
 김종훈(2016), 정밀한 시 읽기.
 김혜원(2012), 오규원의 ‘날이미지시’에 나타난 사진적 특성, 한국언어문학 83집.
 류수열 외(2014), 문학교육개론, 역락.
 박선영(2004), 오규원 시의 아이러니와 실존성의 상관관계 연구, 국제어문 32집.
 송기한(2007), 오규원 시에서의 언어의 현실응전 방식 연구, 한민족어문학 50집.
 송하춘 외(2014), 문학에 이르는 길.
 양왕용(1997), 현대시교육론, 삼지원.
 오규원(1983), 언어와 삶, 문학과지성사.
 오세영(2013a), 시론, 서정시학.
 오세영(2013b), 문학이란 무엇인가, 서정시학.
 윤여탁 외(2011), 현대시 교육론, 사회평론.
 이찬(2011), 오규원 시론과 변모 과정 연구, 한국민족문화, 41집.
 이해원(2015), 현대시 운율과 형식의 미학
 장동석(2011), 오규원 시의 사물 제시 방법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35집.
 정경은(2014), 버리기와 더하기의 변증법, 한국문예창작 13권 1호.
 정유미(2011), 오규원 시에 나타난 날이미지의 환유 체계 연구, 한국언어문학 79집.
 조동일(1992), 한국문학의 갈래 이론, 집문당.

Abstract

Research on Learning Methods for Context-Based Poetry

Oh, Jeong-Hun

It can be said that the focus of poetry appreciation is spontaneous and context-based. This is because if students aim to internalize, in relation to their own lives, the various emotions and meanings discovered through poetry, they will be able to realize the essence of poetry learning. However, even if emphasis is placed on spontaneous and subjective appreciation, literary appreciation should be based on textual meaning so that consensus may be brought about within the discourse community and students will be able to learn how to appreciate literary works. Hence, in this paper, we have come up with a spontaneous method to understand poetic meaning in literary works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ir inner and outer contexts. In addition, we took the poet's context into consideration and tried to work towards a clearer meaning based on the creative purpose and values of the poet. By identifying the essential components of literary works such as poetic language, image and tone, we were not only able to expand imagination in a fixed and successive manner, but also expand inner textual meaning based on related and similar works. A student's spontaneous exploration of the poet's values in a literary work through meta-texts and materials containing values of the poet may prove to be another focal point in poetry appreciation.

Key words: autonomy, context, intertextuality, poet recognition

논문 투고일: 2018. 6. 05.

심사 완료일: 2018. 6. 10.

게재 결정일: 2018. 6. 30.